[UCI]I804:24011-200000231679

2007년 2월

교육학석사(교육행정)학위논문

남·여 중학생의 성 의식에 관한 비교 분석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 육 행 정 전 공

지 분 순

남 · 여 중학생의
성 의식에 관한 비교분석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exual Consciou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2007년 2월

조선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지 분 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00373478 2007-04-09

남 · 여 중학생의
성 의식에 관한 비교분석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주 성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교육행정)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年 10月 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 육 행 정 전 공

지 분 순

지분순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6年 12月 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v

Ⅰ.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 문제 ····· 3

C. 연구 범위 및 한계 ····· 4

Ⅱ. 이론적 배경 ····· 5

A. 청소년기의 성 ····· 5

1. 청소년의 특징 ····· 5

2. 청소년의 성태도 ····· 9

3. 청소년의 성지식 ····· 10

4. 청소년의 성의식 ····· 11

B. 선행연구의 고찰 ····· 14

Ⅲ. 연구방법 ····· 19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19

B. 조사도구 및 내용 ····· 20

C. 자료의 분석방법 ····· 21

Ⅳ. 연구결과 및 해석 ····· 22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22
B. 성에 대한 태도 비교 분석 결과 ····· 25
C. 성에 대한 지식 비교 분석 결과 ····· 32
D. 성에 대한 의식 비교 분석 결과 ····· 35

V. 결론 및 제언 ····· 53
A. 요약 및 결론 ····· 53
B. 제언 ····· 58

참고 문헌 ····· 58

부 록 ····· 61

표 목 차

<표 1> 조사 대상자의 지역별 현황 ····· 19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0
<표 3>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 21
<표 4> 학교생활의 만족도 ····· 22
<표 5> 고민거리 ····· 23
<표 6> 몽정경험 유무 ····· 23
<표 7> 몽정을 처음 경험한 나이 ····· 24
<표 8> 초경경험 유무 ····· 24
<표 9> 초경을 처음 경험한 나이 ····· 24
<표 10> 성이란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 ····· 26
<표 11> 친구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 경험 유무 ····· 27
<표 12> 이성과 사귀고 싶은 생각 유무 ····· 28
<표 13>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느낌 ····· 29
<표 14> 성교육을 받는다면 배우고 싶은 내용 ····· 29
<표 15> TV, 비디오, 영화 등에서 키스, 포옹, 침실장면을 봤을 때 느낌 ····· 31
<표 16> 성 고민 상담 우선순위 ····· 31
<표 17> 성에 대한 지식차이 비교 ····· 33
<표 18>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경로 ····· 34
<표 19>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 ····· 35
<표 20> 중학생의 적당한 이성교제 수준 ····· 36

<표 21> 이성에 대한 성 충동 경험유무 ····· 37
<표 22> 성적인 충동을 가장 많이 느낄 때 ····· 38
<표 23> 성적 충동을 느낄 때 해소방법 ····· 39
<표 24> 성폭력이나 성희롱 경험유무 ····· 40
<표 25> 성폭력이나 성희롱 경험했을 때 자신의 위치 ····· 41
<표 26> 성추행을 당한 장소 ····· 42
<표 27> 성추행 상대자 ····· 42
<표 28> 자위행위의 경험 유무 ····· 43
<표 29> 키스 경험 유무 ····· 43
<표 30> 키스 한 당시 나이 ····· 44
<표 31> 키스 상대자 ····· 44
<표 32> 성별에 따른 애무 경험 유무 ····· 45
<표 33> 애무 경험 시 나이 ····· 45
<표 34> 애무 상대자 ····· 46
<표 35> 성관계 경험 유무 ····· 46
<표 36> 성관계 경험 당시 나이 ····· 46
<표 37> 키스, 애무, 성관계 경험 시 느낀 감정 ····· 47
<표 38> 재학 중 본인이나 친구가 임신했을 경우에 대한 생각 ····· 48
<표 39> 낙태에 대한 생각 ····· 49
<표 40> 결혼 전 순결유지에 대한 의견 ····· 50
<표 41> 순결을 지켜야하는 이유 ····· 51
<표 42>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 ····· 51

ABSTRACT

A Study on Sexual Consciou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Jee, Bun Sun
Advisor : Prof. Park, Joo-Sung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on sexual consciousness between 9th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especially by comparing 3 regional levels, metropolitan areas, medium and small city areas, and rural area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544 of 9th grade students who enrolled in 6 middle schools of 3 regional areas. Data were collected from questionnaire which is consisted of 35 questions about sexual consciou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To analysis the data Chi-Square(x^2) Analysis and ANOVA were used using SPSS Win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following:

First, middle school boys were more interested in sexuality than girls. Boys who live in rural areas were more interested in sexuality than boys who live in metropolitan and medium and small city areas.

Second, middle school boys have more knowledge on sexuality in general than girls. Boys who live in rural areas have more knowledge on sexuality in general than boys who live in metropolitan and medium and small city areas.

Third, Second, middle school boys have more conscious on sexuality in general than

girls. Gernerally speaking, boys who live in rural areas were more conscious on sexuality in general than boys who live in metropolitan and medium and small city areas.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Stone과 Church(1968)는 청소년기를 인간발달 과정의 중간역(middle station of life)이라 하였고, Freud(1958)는 혼란의 기간(a period of confusion)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인간이 태어나서 겪어야 하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의 과정에서 심리적 긴장, 불안과 초조감이 축적되어 심리적인 격동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중학생 시절은 사춘기로서 빠른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이때의 중학생들은 성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증가해가고, 성 윤리에 대한 갈등과 고민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 더욱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성욕과 이성에 대한 큰 관심은 그 들 자신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 충동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애감정에 사로잡힐 경우에는 혼자서 고민하고 방황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학업부진, 식욕부진, 가출 등의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에 좋은 이성 관계는 학업에 더욱 열중하는 계기가 되고, 대화의 폭도 넓어져서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이것이 청소년기의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청소년기에 건강한 성적 발달과 성 인식을 갖추는 것은 그들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 있는 중학생들은 성정체성 형성의 시기에 있으므로 건전한 성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최혜영, 송정아, 2006; 홍선화, 2000).

그러나, 현대사회는 성의 개방화와 더불어 TV, 영화, 인터넷 등 각종 대중매체들을 통하여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들이 여과없이 청소년에게 전달된다. 이것이 그들의 성적 충동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 의식과 가치관이 성립되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흡수되어 잘못된 성 행동이나 성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구경화, 2004).

이처럼 성교육의 부재와 자극적인 환경은 청소년의 성문제와 성범죄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시기에 획득해야 할 발달과업을 저해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말부터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의 공백기간에 성적인 문제를 포함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나이를 속이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별 생각없이 컴퓨터 채팅을 시작하고, 성인과 원조교제의 결과로 발생한 성폭행이나 임신 등의 문제들은 이러한 중학생들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또한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무분별한 성적행동을 조장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정확히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필요성이 그 만큼 절실하다.

박종수(1998)는 성교육의 필요성을 성에 대한 지식을 일깨움과 동시에 성 자체를 올바로 이해하며, 남성과 여성 제각기의 성 기능 및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여 남녀간의 상호관계에 따른 인간 본연의 자세를 가르치고 개인의 성장발달과 성적 성숙을 바탕으로 사회윤리에 부합하는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구경화(2004) 또한 성교육의 목적을 성을 중심으로 한 이성간의 적응을 기초로 해서 인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발달하고 성숙하며, 개인적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원만한 대인관계, 사회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성의식과 관련된 최근의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주제별로는 성의식 전반(김석우, 한홍련, 2005; 임금자, 2005; 한홍련, 2005), 성태도(권혜진 외, 2006; 심희정, 1999; 이영숙, 2005; 이일환, 2006; 이찬석·김윤정, 2003; 이창식, 김윤정, 2003; 최경숙, 2002; 최혜영, 송정아, 2006), 성지식(심희정, 1999; 이일환, 2006; 최경숙, 2002; 최혜영, 송정아, 2006), 성행동(김혜원, 이해경, 2000; 박유철, 1999; 송기석, 2004)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김석우, 한홍련, 2005; 심희정, 1999; 이일환, 2006; 최혜영, 송정아, 2006; 한홍련, 2005), 중소도시(송기석, 2005; 임금자, 2005), 농어촌(박유철,

1999)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연구들은 지역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대도시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별로는 중학생(김석우, 한홍련, 2005; 송기석, 2004; 임금자, 2005)과 고등학생과 대학생(김혜원, 이해경, 2000; 이찬석 · 김윤정, 2003; 이창식, 김윤정, 2003)들을 대상으로 두루 이루어졌다. 또한, 성에 대한 의식을 성별로 비교한 연구(구경화, 2005; 김석우, 한홍련, 2005; 김혜원, 이해경, 2000; 이일환, 2006; 이창식, 김윤정, 2003; 한홍련, 2005)들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성의식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시기인 중학교 3학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박유철(1999)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성별차이나 지역별 차이를 고찰한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성별 차이와 지역별 차이를 동시에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춘기의 절정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태도, 성지식, 성의식을 남 · 여별,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촌의 지역별로 설문지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이들 변인간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과 생활지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B.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는 성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은 성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에 대한 의식은 성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가?

C. 연구 범위 및 한계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해석상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3개 지역별 차이를 고찰하고자 하였으므로, 지역별로 2개교식 6개교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도시는 서울의 강남구, 중소 도시는 전북 정읍시와 전남 광양시, 농촌은 전북 순창과 전남 화순의 중학교 3학년 학생 560명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3개 지역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의 대표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해석상의 주의를 요한다.

둘째, 성의식에 관한 질문은 누구에게나 민감하고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이 많아서 설문지에 응답을 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 중학생들이 질문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사실대로 응답하였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기본 자료는 성 지식, 성 태도와 성 행동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이용미(1998)의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박종수(1998)와 홍선화(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으나 표준화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Ⅱ. 이론적 배경

A. 청소년기의 성

1. 청소년의 특징

청소년(Adolesecnce)이란 요어는 라틴어의 adolscent에서 유래된 말로 '~로' 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ad와 '성장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alescere가 합성된 말로서 청년기란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기'라는 뜻을 지닌다(최경숙, 2002, p. 10에서 재인용). 사람마다 성장과 성숙의 속도가 다르지만,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 12~20세까지를 청소년기라 한다. 청소년기는 몸과 마음이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옮아가는 시기이다. 청소년은 어린이와 어른사이에 있으므로 어떤 때는 어린이로, 어떤 때는 어른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때때로 어른들의 양면적인 태도 앞에서 어리둥절하게 마련이다.

예전에는 사춘기를 맞이할 즈음 결혼을 하는 등 어린이에서 곧바로 어른이 될 것을 사회가 요구하였기 때문에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로서의 청소년기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되고 정보와 기술이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등 어른 되기 위한 준비기간이 매우 길어졌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랜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는 것이다.

Freud(1958)는 청소년기는 극적인 신체적 변화, 생리적 변화로 말미암아 격동의 단계이며, 잠복기 동안에 잠자고 있던, 성적·공격적 충동은 자아와 그 방어를 압도할 정도로 위협한다고 하였다. 잠복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신체에서 성적쾌감을 추구하고 자기애착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 비로소 타인인 이성으로부터 성적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 자립하고자 전환을 시도하는 시기이며, 심리학적으로는 아동기와 성인기 중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않는 주변적 상황에서 새로운 심리적 적응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직 성인 문화에 흡수된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므로 주변인 또는 중간인(intermediate man)이라고도 하며 10대 연령이라고도 한다(이백희, 2000, 재인용).

L. Lewin(김인석, 1986, p. 16에서 재인용)은 청소년기를 무인지대(No man's land)라 하여 청소년은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즉, 돌아다니는 주변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C. S. Hall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period of storm and stress)'라며 과도적 시기에 내재하는 청소년기의 불안정하고 동요적인 면을 표현하였다(박아청, 1987, p. 3에서 재인용). 청소년기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갈등과 불만이 내재하여 방황하게 되는 시기임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의 특징을 여러 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화수(1992, p. 202 재인용)는 10대의 청소년들은 사춘기동안에 두뇌가 1/3 정도의 크기가 증가한다고 한다. 성인 두뇌 무게 중 1.5kg 정도는 16세부터 20세 사이에 커진다. 청소년은 대체로 9세~24세의 연령기에 있는 자로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되어 가는 과도기적 존재라고 정의하고 이기간 동안의 발달과정에는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황응연, 이기돈, 1992, pp. 305~310 재인용)

첫째,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한 성장을 거쳐 신체적으로는 성인의 수준에 도달한다. 둘째, 청소년의 생활과 행동에는 성적 성숙이 기초가 되어 종전의 불안정성이 사라지면서 점진적으로 세련된 양상으로 변한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으로부터는 소원해지지만, 반면에 이성에 대한 적응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다.

D. P. Ausubel은 청소년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이백희, 2001, p. 9에서 재인용). 첫째, 청소년기는 인격의 발달에 있어서 이행단계에 속한다. 둘째, 청소년기에는 생리의 변화로 인하여 충동적이며 자극적인 존재로 통제의 필요성을 갖는다. 셋째, 양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청소년기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준다.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생리적 여러 기능이 형성된다.

② 성(Sex)의 성숙으로 이성에 관심이 많아진다.

③ 자아의식의 발달로 심리적 이유(離乳) 현상이 나타난다.

④ 주관이 형성되어 현상, 친구, 기호, 취미 등의 선택이 뚜렷해지고 사고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또한 비판적, 합리적이다.

⑤ 개성이 뚜렷해져 독립된 사회인이 된다.

⑥ 권위에 대한 반항심이 강하고 고독을 즐기고, 갈등으로 깊이 고뇌하고 자기 감정에 도취한다.

⑦ 과도기적 현상으로 부적응과 비행도 많다.

⑧ 철학과 인생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장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

⑨ 행동의 중용이 없는 시기로 백일몽에 잠겨 있기도 한다.

⑩ 사회적 위치가 확립되고 집단관계와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진다.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며 성은 인간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청소년기의 성은 성장과 발달의 근원이기도하고, 좌절과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각종 문제를 예방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첫걸음은 청소년의 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은 'sex', 'gender', 'sexuality'라는 3가지 개념으로 대변된다. 'sex'는 흔히 생물학적 성이라 불리며 신체구조, 특히 성기의 생김새에 따른 남녀간의 성정체감을 자칭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남녀간의 성기 결합이나 성 관계란 의미로 사용된다. 'gender'는 우리말로 '성별', '성 차', '성 역할'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사회·문학적 구분 혹은 사회·문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에 부과된 일련의 특징 및 행동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성'이라 이해된다. 그리고 'sexuality'는 성적욕망, 실천들, 정체성 등을 의미하며,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까지를 포함한다. 또는 성적인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성적인 느낌이나 관계들,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이나

영, 1999).

Freud(1958)는 청소년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급격한 성장을 거쳐 전체적으로 성인의 수준에 이르면 생리적으로도 여러 기능이 왕성해진다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비교적 이드(Id)와 약한 자아(ego)가 대결하는 시기이며, 결과적으로는 본능적 불안이 커지고 감정변화가 심하고 퇴행적 행동을 하기 쉽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갈등과 스트레스는 높아진다.

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소년기의 시작은 여자에 있어 초경의 시작과, 남자에 있어서는 몽정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여자는 11세 경, 남자는 13세경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년 정도 빠르며 이 시기에는 성호르몬의 활성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남녀가 각각 서로 다른 생식능력이 갖추어지고 2차 성장의 발달이 뚜렷해진다.

남성의 성적성숙을 나타내는 최초의 외적 징조는 고환과 음낭의 성장이다. 그 후 음모의 성장이 천천히 시작된다. 거의 일 년 쯤 지나면 음경과 키가 동시에 급성장 한다. 여성의 성적성숙의 최초표시로서 성 선의 호르몬 자극이 먼저 시작되지만, 9세나 10세에 무색의 솜털과 같은 음모가 여성의 성적 성숙의 외적인 징조로 처음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중의 17% 여자들은 가슴이 먼저 크기 시작한다. 나이 12세경이면 유두가 색조를 띠고 12세 중반쯤 되면 초경이 시작된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발달과 함께 성의식도 크게 발달한다. 이시기는 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성에 접촉하고자 하는 성적인 욕구가 강해지는 등 이성과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박성정, 1996). 건강한 청소년이라면 보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생리현상이 바로 성충동이다. 류혜옥(1986)의 연구에서는 2차 성장의 발현으로 여러 가지 육체를 경험하는데서 일어나는 성 욕구를 순화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 열등감으로 인한 일종의 보복심리가 작용하여 탈선과 사고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다(박유철, 1999, p,7에서 재인용)

청소년기의 연령구분은 민족, 문화, 풍토, 시대,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르며 각 연구자에 따라서도 청소년기라고 부르는 연령 범위가 다르다. 사춘기 및 청소년기를 13~15세로 보고 있으며(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3, p. 34), 심리적 발달을 신체발달

과 견주어 여러 단계로 구분하는 일이 많은데 중학 시절인 만 12세부터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12세부터 15세까지를 사춘기라고 말한다. 학교제도에 의한 구분으로 3단계로 분류하여 청소년 전기(13세~16세), 청소년 중기(17세~19세), 청소년 후기(20세~23세)로 나누기도 한다(황응연, 이기돈, 1992, p. 308).

E. L. Thorndike는 발달단계에 대한 청소년기를 교육적 입장에서(장병림, 1975, p. 62), ①과도기: 11세경부터 14세경까지, ②청소년 전기: 14세경부터 17세경까지, ③청소년 후기: 17세경부터 20세경까지 라고 구분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를 전환해 가는 이행기라고 보고, 청소년 후기를 성인기로 가는 이행기라고 생각한다면 청소년 전기는 청소년기의 특색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며 중학생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된다.

2. 청소년의 성태도

태도란 자기의 환경에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갖는 체계화되고 일관성이 있는 사고, 감정 및 행동의 양식을 말한다. 따라서 성태도란 성욕에 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계화 되고 일관성 있는 사고, 감정 및 행동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이일환, 2006).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성에 대한 태도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전한 성 태도는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좌절감과 성적일탈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사춘기에 형성된 성에 대한 태도 여하가 일생동안의 성 태도를 좌우하며 이러한 성에 대한 태도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성지식을 얻은 시기와 범위, 영향을 준 사람의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Hurlock, 1973).

성 태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관계에 대한 개방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과 결혼상대의 순결을 중시하는 상반된 성적 가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심희정, 1999), 또한 청소년의 성태도에 관한 홍명호(1995)의 연구에서 '성관계와

결혼은 관계없다'는 답변이 47%, '사랑하면 성관계를 허용할 수 있다' 26.7%, '결혼 전 까지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11%, '혼전성관계를 갖되 결혼해야 한다' 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태도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준 연구로는 '2000 MBC 청소년 백서'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랑과 성에 관한 인식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윤곽을 보이지만,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성관계는 사랑과 별개로 대상이 다를 수 있다', '성관계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성관계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관계는 중고교 시절에도 가능하다' 들에 더욱 동의하고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반면 여학생들은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해야 한다', '성관계는 동물적이고 질이 낮다', '성관계는 중고교시절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와 같은 문항들에 동의하는 정도가 많아 성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성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청소년의 성지식

성지식이란 성에 대한 가치나 현상 및 남녀 간의 생리적 관습과 행동에 관한 사실, 개념, 정보, 관념 등을 말한다. 성에 대한 건강한 지식은 건강한 지식인으로서 알아야할 성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거기에는 생리적 현상 뿐 아니라 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는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얻어져야 한다(송기석, 2004).

성지식에 관한 연구(김기숙, 2005; 박선희, 2004; 배무련, 2005; 이일환, 2006)를 살펴보면, 성지식 습득대상은 여학생은 학교선생님이 가장 많고, 남학생은 친구가 많았다. 성지식 습득매체로는 여학생은 TV, 남학생은 인터넷 성관련사이트 가 많았다. 또한 성교육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계수연, 1999), 성교육을 받은 집단이 성교육을 받지 않는 집단보다 성지식 면에서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이일환,

2006)

Demetri(1979)는 성교육이 학생들의 성에 관한 적절한 태도와 지식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런 지식의 증가는 학생들의 성관련 죄의식이나 고민의 수준을 감소시키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Wood(1975)는 성교육 과정이 성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해 학생을 돕는데 효과적이며 태도변화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4. 청소년의 성의식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 정신 심리적, 사회문화적, 윤리 도덕적 차원등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인격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Hendrick & Hendrick, 1987).

성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나 개념 및 개인의 존재 등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 성의식이다. 성의식의 발달은 성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시작한다. 성은 모든 인간관계를 포함하고 인간이 애정의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고 애정을 증가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성적 혐오시기와 성적 애착시기에 속해 있는 중학생들의 성의식 발달과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시기이다. 그러나 신장, 체중 등의 성장이나 성적 성숙에서 볼 수 있는 현저한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생리적인 면의 형식적인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성선(性腺)의 발달은 제2차 성적 특징을 보여주어 남녀의 성적 차이를 명확하게 하며, 강력한 성적 욕구를 일으킨다(김제한, 1986, p. 343).

중학생 시기에 나타나는 2차적 성장을 남녀별로 보면 우선 남자의 경우에는 고환과 음낭, 음경이 커지고 음모와 액모(腋毛)가 발생하고 턱수염이 나고 변성이 되며 정자의 생산증가와 몽정이 있게 된다. 여자의 경우는 유방이 발달하고 자궁과 질이 커지고 음모와 액모가 발생하고 골반이 확대되며 초경이 시작된다.

중학생 시기에는 자기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중학생 시절의 정신적 특징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 중학생들의 자기 신체에 대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학생이 되면 자아의식이 민감하게 되어 자신의 용모, 신장, 체격을 타인과 비교,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또한 성적 감각이 민감해짐에 따라서 이성에 관심을 가진다.

② 중학생 시기가 되면 도덕적·인격적 가치를 인식하고 미적 가치에 대해서도 뛰어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높은 적도를 자기에게 맞추려고 한다.

중학생의 정서적 특징을 보면 남녀의 행동은 아동기나 성인기에 비하여 현저히 과민해 질뿐만 아니라 동요가 심하며 또 흥분하기도 쉬우며 정서적 색채가 풍부하다. 그래서 중학생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칭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중학생 시기의 정서적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을 들 수 있다(황응연, 이기돈, 1992, p. 322).

중학생 시기는 아동들보다 훨씬 감동하기 쉽다. 그들은 타인의 작은 언동에 쉽게 분노하고 얼굴을 붉히고 또 웃음을 짓거나 슬픔에 잠기곤 한다. 그리고 중학생 시기의 자기 영웅시에서 표현되는 부푼 감정과 함께 자신을 잃은 열등감이 청년의 마음을 서로 엇갈리며 지배한다. 따라서 동일한 상태에 놓일지라도 어떤 때는 격심한 분노에 불타고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반대로 기쁨에 넘치기도 한다. 학교에서의 실패, 자기가 원하는 것이 거부되었을 때, 부모와의 다툼, 죄책감 등과 같이 무능력감과 불안전감을 일으키게 하는 불쾌한 경험에 속하는 것이 많다고 한다.

정서는 아동의 정서보다 영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기분 또는 생활감정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일시적 장면에서의 정서적 경험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을 폭 넓게 할 뿐더러 그 기반이 되게 하며 중학생의 정신생활에 풍요로움을 부여한다. 같은 중학생 시기에 있어서도 각 개인마다 생활조건이 다양함에 따라 정서적 표현에 있어서도 개인차가 생긴다. 즉 중학생 시기의 정서 표현은 피로, 수면부족 등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지능 등에 좌우되는 일이 많고,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가 정서적 표현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장자 및

독자는 분노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성공여부, 사회적 승인의 정도 직업적 흥미에 따라서 개인차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의 지적 발달이란 일상생활에 있어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춘기가 되면 지능발달은 급상승하지 않으나 언어추리, 산수추리에서는 현저한 변화를 보인다. 과도기적 현상으로 사춘기는 아동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중학생들의 행동은 아동기와 같이 자극에 대한 기계적 반응을 하는 것이 하니라 논리적 사고를 통한 추리작용을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판단, 추리, 상상과 같은 기능이 현저히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1, 2학년 때 논리적 기억의 발달, 추리적 사고의 발달, 이상의 발달, 형식적 발달, 문제 해결적 사고의 발달, 비판적 사고의 발달 등이 가장 정점을 이루어지게 된다(황응연, 이기돈, 1996, p. 329).

이러한 발달을 중학생의 지적 발달을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하게 한다. 이를테면 기억에 있어서의 청각적 기억의 변화, 또 사고에 있어서도 구체적 사고에서 추상적 사고의 변화 등은 모두 중학생시기의 지적 발달에 있어서의 질적 변화인 것이다. 지적 발달은 지적 여러 요소가 각각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역동적 작용에 의하여 보완되고 조성되어 통일된 체계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중학생들은 그들의 지적 발달로 인하여 적응력이 발달되어 사회성 발달이 촉진되고, 이것이 또한 중학생의 인격 형성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청소년 초기의 중학생들의 사회적 특성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지며 점점 자기 자신과 친구에게 의존하기 시작한다. 부모들은 중학생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고 있다는 기쁨과 함께 자녀들로부터 거부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학생들의 신체적 성장은 부모의 물리적 처벌이나 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가정 내에서 중학생이 기여할 일을 증가시킨다. 또한 형식적 조작사고가 가능한 중학생들은 부모가 제시하는 규칙이나 가치관의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대부분 중학생들은 부모나 형제자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때 점점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한다.

중학생들이 가까운 친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아동이 친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는 다르다(장휘숙, 2000, p. 240). 아동에게 친구는 어디까지나 함께 놀이나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이지 애정과 정서적 의존을 위해 필요한 존재는 아니다.

청소년 초기의 중학생들은 동성의 친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우정을 나누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성의 친구들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사춘기 시작과 함께, 호르몬 분비의 변화는 중학생들의 이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인간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한다.

B. 선행연구의 고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는 1965년에 이루어진 서봉연과 전광문의 '순결 교육을 위한 기초조사'이다. 이후 청소년들의 성 의식 및 성 문제, 성 지식, 이성교제 및 성 경험 실체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들 중에서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의식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본다. 홍선화(2000)의 연구에 의하면, 월경을 경험한 여학생은 전체의 87.5%인데 반하여 몽정을 경험한 남학생은 전체의 43.7%로 나타났는데, 이로 보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성 성숙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년별로 보면 월경을 경험한 여학생 1, 2, 3학년은 각각 73.0%, 87.5%, 97.8%로 나타났으며, 몽정을 경험한 남학생 1, 2, 3학년 각각 27.0%, 35.1%, 53.4%로 나타남으로써 남녀간 성 성숙도의 뚜렷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월경을 처음 경험한 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여학생의 경우는 전체의 39.1%가 초등학교 6학년, 전체의 38.6%는 중학교 1학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몽정을 처음 경험한 시기가 남학생 전체의 43.0%가 중학교 1학년, 전체의 27.8%가 중학교 2~3학년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생리현상의 시기가 더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월경과 몽정을 처음 경험한 후의 느낌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그저 그랬다는 응답이 남

학생전체의 40.3%, 여학생 전체의 47.0%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35.0%가 잘 모르겠다, 여학생의 경우 전체의 34.3%가 무척 당황했고 부끄러웠다는 응답을 함으로써 남녀간의 차이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춘기를 인식하게 된 2차 성징의 내용을 보기별로 나누어 볼 때, 월경이나 몽정을 경험했을 때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전체의 2.4%, 여학생은 전체의 32.2% 응답률을 보여 줌으로써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남녀간의 몽정과 월경의 경험시기가 서로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체적 변화(생식기의 털, 가슴의 변화, 겨드랑이의 털)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전체의 43.2%, 여학생은 전체의 28.8%를 나타내었고, 이성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전체의 20.5%, 여학생은 전체의 35.7%로 다소 남녀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목소리의 변화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전체의 33.8%, 여학생은 전체의 3.3%로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변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포경수술의 필요성 정도에 관하여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38.2%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전체의 35.2%는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전체의 51.9%는 잘 모르겠다, 전체의 31.1%는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로 보아 여학생의 포경수술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었다.

구자혁(2000)에 의하면, 첫째, 중학생 전체로 볼 때 남녀의 생식기관에 대한 성 지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신과 특히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지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관련된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관한 지식을 제외하고는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 성적에 따른 성 지식과의 관계에서 80~89점대의 학생집단들이 다른 집단의 학생보다 성에 관한 지식이 높게 조사되었고, 90점 이상의 집단이 70~79점대의 학생집단보다 각 분야의 성 지식에서 그 점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적과 성 지식과는 그리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

은 결과로 볼 때 학교의 성교육이 신체의 구조와 생리적 현상에 관한 지식위주의 교육에 치우치고 있으며,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교육이 미흡한 상태라 할 수 있어 우리의 학교 성교육에 그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둘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은 귀하고 아름다우며 남녀간의 조화를 위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인간관계이고, 순결은 남녀 모두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성을 본능 해소를 위한 쾌락 또는 생리적 욕구와 육체적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의 집단이 농촌지역의 학생보다 중소도시 또는 서울지역의 학생들이 많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

성적 고민이 있을 때 남학생은 혼자 고민하거나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그 다음이 서적이나 인터넷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다고 응답을 하였고, 여학생은 친구 또는 혼자 고민하거나 자기 스스로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대상물(음란물)의 경험(성행위사진, 포르노비디오테이프 또는 CD 등)은 남학생인 경우 80%가 되며, 여학생인 경우는 32%이다. 남학생은 주로 친구를 통해서나 집에 있는 것을 보았고, 여학생은 집에 있는 것을 몰래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성간의 성적인 경험에서 키스나 성행위를 경험한 빈도가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적인 경험의 대상이 대부분 이성의 친구이지만, 친척이나 가족성원 중에서 경험을 하였대도 조사되었고, 성적인 경험 후 싫은 느낌이 아니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경험을 하고 싶다고 조사되었다.

셋째, 청소년들의 성적충동의 해소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다는 남학생은 51.1%, 여학생은 7.7%로 조사되었고 남학생 중 40.5%, 여학생 중 66.1%가 성적 충동을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폭력을 당했을 때 창피하여 비밀로 한다는 응답이 남녀학생 모두 55%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성폭력을 당했을 때 아버지나 교사에게 말하고 의논한다는 학생이 30% 미만이며 남학생과 여학생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넷째, 학교의 성교육 실태는 HR시간이나, 결강시간, 아침 자율 학습시간에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행하여지고, 농촌지역의 학생은 관련교과 교사가, 중소도시 지역이나 서울지역의 학교에서는 양호교사가 성교육을 담당한다고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은 시시하고, 호기심만 자극할 뿐 전혀 도

움이 안 된다고 응답을 한 학생이 70%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에게 필요한 성교육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적호기심 해결법 > 성적 욕구 및 충동 > 자위행위의 문제점 > 건전한 이성교제 > 여자의 생식기관 순으로, 여학생에게 필요한 성교육 내용은 임신, 출산, 피임법 > 생리현상 > 성폭력 대처법 > 여자의 생식기관 > 남자의 생식기관의 순으로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경숙(2002)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 고민 상담 대상은 남녀 모두 학교친구와의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접한 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6학년이 가장 많았고 , 그 다음으로 중학년 1학년 때가 많았다. 성지식 수준에 대한 성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녀 모두 비교적 정확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성지식 수준에 있어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다. 영역별로는 남녀생식, 피임, 성병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다.

성행동별 경험에 있어서는 '이성과 손잡는 행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키스가 두 번째로 많았다. 성행동의 성별차이에서는 성행동 전체와 4가지 행동(이성과 손잡는 행동, 키스, 애무, 성관계)에 대한 남녀 학생 간 유의미한 차이기 없었다.
그러므로 성 행동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다.

성 태도에 대한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 음란사이트 방문, 혼전 성 관계 등의 태도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개방적인 반면, 여학생은 혼전 성관계나 피임에 대해 더 보수적 이었다.

구경화(2004)의 연구에 의하면 성의식 실태면에서는, 첫째, 청소년의 생리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중학생들이 신체적 성숙을 준비 없이 맞이하거나 성적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순히 성하면 자연스럽게 여기면서도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에 한정해 인식하는 경향은 아직 남아 잇는 경향이었다. 셋째, 자위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무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성별에 따라 성욕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성욕의 감정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성충동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남학생의

경우 자위행위로 해소하거나 직접 성 행위를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여섯째. 성 고민을 해결하는 상담자는 친구와 의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 고민 중인 학생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이성간의 친구관계는 인정하고 있었고 이성교제 시 신체적인 접촉을 허락하고 있었다.

성교육 실태 면에서는, 첫째, 과거에 비해 학교 성교육의 실시와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는 교육청의 권장 정도에는 충분하지 않아 미흡한 편이다. 둘째, 과반수 정도의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교육 내용과 이론적인 교육에 불만족하고 있었다. 셋째,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주로 양호교사에 의해, 특활시간에, 임신·피임에 관한 내용을, 시청각자료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넷째, 성교육 요구 사항으로는 전문강사, 양호교사, 관련과목교사 등에 의해 특활시간이나 관련교과목 시간 등을 통해 다양한 내용과 수업방법의 매체를 원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 의식에 관한 조사로 조사대상은 대도시로서 서울의 강남, 중소 도시로서 전북의 정읍시와 전남의 광양시, 농어촌으로서 전북의 순창과 전남의 화순의 중학교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학교에서도 임의의 3학년 학급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조사요원은 각 학교의 교사들로 하였으며 사전에 설문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조사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06년 5월초부터 6월초까지 1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지역별 현황

지 역 (학교수)	학생수	상대 빈도(%)
대도시 (2개교)	193	35.5
중소도시 (2개교)	190	34.9
농촌 (2개교)	161	29.6
합 계	544	100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의 선정은 대도시(2개교), 중소도시(2개교), 농촌(2개교) 중학교 3학년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560부가 회수되었으며(93.3%의 회수율), 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544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수	퍼센트(%)
성별	여	285	52.4
	남	259	47.6
지역별	대도시(서울)	193	35.5
	중소도시(전남, 전북)	190	34.9
	농촌(전남, 전북)	161	29.6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남의 성별이 52.4%와 47.6%로서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별 구성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연구대상자가 35.5%, 34.9%, 29.6%로서 고르게 분포하였다.

B.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기본 자료는 '성 태도' 및 '성 지식', '성 행동'에 관하여 연구 논문들을 참고로 하여 만들었다. 본 연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설문지의 문항을 작성하는 데는 이용미(1998)가 조사한 '중학생의 성 의식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박종수(1998)의 '중학생 성 의식에 관한 연구', 홍선화(2000)가 실시한 '한국 수도권 중학생의 성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등에서 사용된 설문지로부터 본 연구와 관련이 깊은 문항을 발췌하여 수정/첨가의 과정을 거쳐서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난해하지 않도록 하여 재구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4개 영역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되도록 학생들이 솔직하고, 신중하며, 지루하지 않도록 설문의 문항들을 배열하였으며, 문항들의 내용은 첫 번째 영역은 응답 학생들의 개인 인적사항에 관련된 문항이 5문항, 두 번째는 성에대한 관심과 생각에 대한 문항으로 7문항, 세 번째 영역은 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성 지식의 습득에 관한 문항들로 7문항, 네 번째의 영역은 성 의식과 경험에 관한 내용으로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설문지의 내용의 특성은 2개에서 8개

까지의 보기를 주고 자신의 의견에 가까운 보기에 표시를 하기로 하였으며, 단답형의 서술형 문항도 넣었으며, 설문의 보기에 자신의 의견이 없다면 기타 란을 만들어서 기입하게 하였다(<표 3> 참조).

<표 3> 설문지의 구성과 내용

	구성 자료	문항수	문항번호	구성 내용
I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	1~5	성별, 지역별, 학교만족도, 고민거리, 신체발달
II	성에 대한 관심과 생각	7	6~12	성에 대한 느낌, 의견 교환, 이성교제, 대중매체의 애정표현 장면
III	성에 대한 지식	7	13~19	신체변화에 대한 지식, 월경/몽정/임신/출산/피임방법/에이즈 에 대한 지식, 성지식의 출처
IV	성 의식과 경험	16	20~35	이성교제에 대한 의식 및 수준에 대한 적정선

C.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남·여학생들의 성에 대한 의견을 비교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자료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의 내용으로 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인 학교생활을 살펴보기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과 지역에 따른 중학생의 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에 대한 성별, 지역별 지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의 프로그램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학교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x^2 (p)
성별	여	15	39	149	68	14	285	6.642 (.156)
		5.3%	13.7%	52.3%	23.9%	4.9%	100.0%	
	남	14	23	140	58	24	259	
		5.4%	8.9%	54.1%	22.4%	9.3%	100.0%	
전체		29	62	289	126	38	544	
		5.3%	11.4%	53.1%	23.2%	7.0%	100.0%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에 크게 관계없이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여자 52.3%, 남자 54.1%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만족에 대한 남학생의 응답이 9.35로서, 여학생의 4.9%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불만족은 여학생이(13.7%) 남학생보다(8.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여학생과 남학생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고민거리

		이성 문제	친구 문제	학업 성적	외모	건강	없다	기타	전체	x^2 (p)
성별	여	31	24	129	29	10	38	24	285	14.088* (.029)
		10.9%	8.4%	45.3%	10.2%	3.5%	13.3%	8.4%	100.0%	
	남	26	13	119	12	14	55	20	259	
		10.0%	5.0%	45.9%	4.6%	5.4%	21.2%	7.7%	100.0%	
전체		57	37	248	41	24	93	44	544	
		10.5%	6.8%	45.6%	7.5%	4.4%	17.1%	8.1%	100.0%	

* $p<.05$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고민거리에 대해 살펴보면, 여학생은(10.2%) 남학생보다(4.6%) 외모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대하여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이성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고민거리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 = 14.088, $p<.05$).

<표 6> 몽정경험 유무(남학생)

몽정 경험 유무	빈도	퍼센트(%)
몽정을 경험했다	116	44.8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115	44.4
무응답	28	10.8
합계	259	100.0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몽정을 경험한 경우(44.8%)와 경험하지 못한 경우(44.4%)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표 7> 몽정을 처음 경험한 나이(남학생)

나이	빈도	퍼센트(%)
11세	1	1.1
12세	4	4.3
13세	22	23.4
14세	33	35.1
15세	29	30.9
16세	5	5.3
합계	94	100.0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몽정을 처음 경험한 나이를 살펴보면, 14세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5세 30.9%, 13세 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초경 경험 유무(여학생)

초경 경험 유무	빈도	퍼센트(%)
초경을 경험했다	256	89.8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10	3.5
무응답	19	6.7
합계	285	100.0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경경험 유무의 결과를 보면 초경을 경험한 여학생은 89.8%로서 경험하지 못한 여학생(3.8%)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대부분의 여학생은 이미 초경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초경을 처음 경험한 나이(여학생)

나이	빈도	퍼센트(%)
11세	3	1.3
12세	7	3.0
13세	74	31.5
14세	103	43.8
15세	40	17.0
16세	8	3.4
합계	235	100.0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경을 처음 경험한 나이는 남학생의 처음 몽정을 경험한 나이와 같은 14세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13세 31.5%, 15세 17%의 순으로 나타났다.

B. 성에 대한 태도 비교 분석 결과

중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를 성별,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이란 말을 들었을 때의 느낌에 대하여 남여학생 모두 아무 느낌이 없다, 부끄럽다, 야하다의 순으로 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아무느낌이 없다 53.2%, 남자 44.7%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끄럽다의 경우에는 여자 22.3%, 남자 17.6%, 흥미롭다는 여자 2.5%, 남자 12.5%, 야하다는 남자 14.5%, 여자 6.4%로 나타나 여자의 경우 부끄러움을 더 느끼는 반면, 남자는 흥미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 = 51.072, p<.001).

지역별로는 아무느낌이 없다는 대도시(52.4%), 중소도시(50.3%), 농어촌(44.0%)의 순으로 나타났고, 부끄럽다는 대도시(16.2%), 중소도시(18.7%), 농어촌(26.4%)로 나타났으나,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10> 성이란 말을 들었을 때 느낌

		부끄럽다	아름답다	아무 느낌이 없다	흥미롭다	야하다	기타†	전체	x^2 (p)
성별	여	63	13	150	7	18	31	282	51.072*** (.000)
		22.3%	4.6%	53.2%	2.5%	6.4%	3.9%	100.0%	
	남	45	22	114	32	37	5	255	
		17.6%	8.6%	44.7%	12.5%	14.5%	1.2%	100.0%	
지역	대도시	31	12	100	14	21	13	191	15.223 (.363)
		16.2%	6.3%	52.4%	7.3%	11.0%	4.2%	100.0%	
	중소도시	35	9	94	16	20	13	187	
		18.7%	4.8%	50.3%	8.6%	10.7%	1.6%	100.0%	
	농촌	42	14	70	9	14	10	159	
		26.4%	8.8%	44.0%	5.7%	8.8%	1.9%	100.0%	
전체		108	35	264	39	55	36	537	
		20.1%	6.5%	49.2%	7.3%	10.2%	6.7%	100.0%	

† 기타 응답에는 더럽다와 두렵다가 포함되어 있음

*** $p<.001$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구들과 성에 대한 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남학생은 있는 편이다(30.5%), 아주 많이 있다(21.9%), 보통이다(21.1%), 별로 없다(17.2%), 전혀 없다(9.4%)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 별로 없다(39.6%), 있는 편이다(24.4%), 보통이다(16.6%), 전혀 없다(14.5%), 아주 많이 있다(4.9%)의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x^2 = 59.119, $p<.001$).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있는 편이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경우 별로 없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친구들과 성에 대한 대화 여부

		아주 많이 있다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전체	x^2 (p)
성별	여	14	69	47	112	41	283	59.119*** (.000)
		4.9%	24.4%	16.6%	39.6%	14.5%	100.0%	
	남	56	78	54	44	24	256	
		21.9%	30.5%	21.1%	17.2%	9.4%	100.0%	
지역	대도시	30	55	35	49	23	192	10.361 (.241)
		15.6%	28.6%	18.2%	25.5%	12.0%	100.0%	
	중소도시	16	57	32	62	20	187	
		8.6%	30.5%	17.1%	33.2%	10.7%	100.0%	
	농촌	24	35	34	45	22	160	
		15.0%	21.9%	21.3%	28.1%	13.8%	100.0%	
전체		70	147	101	156	65	539	
		13.0%	27.3%	18.7%	28.9%	12.1%	100.0%	

*** $p<.001$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성과 사귀고 싶은 생각에 대하여는 남학생의 경우, 있는 편이다(37.4%), 보통이다(23.7%), 아주 많이 있다(16.7%), 별로 없다(15.2%), 전혀없다(7.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있는 편이다(38.9%), 보통이다(29.8%), 별로 없다(16.8%), 아주 많이 있다(9.5%), 전혀 없다(4.9%)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있는 편이다, 보총이다, 별로 없다, 아주 많이 있다, 별로 없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표 12> 이성과 사귀고 싶은 생각

		아주 많이 있다	있는 편이다	보통 이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전체	x^2 (p)
성별	여	27	111	85	48	14	285	8.697 (.069)
		9.5%	38.9%	29.8%	16.8%	4.9%	100.0%	
	남	43	96	61	39	18	257	
		16.7%	37.4%	23.7%	15.2%	7.0%	100.0%	
지역	대도시	27	72	49	29	16	193	6.063 (.640)
		14.0%	37.3%	25.4%	15.0%	8.3%	100.0%	
	중소 도시	19	77	52	33	8	189	
		10.1%	40.7%	27.5%	17.5%	4.2%	100.0%	
	농촌	24	58	45	25	8	160	
		15.0%	36.3%	28.1%	15.6%	5.0%	100.0%	
전체		70	207	146	87	32	542	
		12.9%	38.2%	26.9%	16.1%	5.9%	100.0%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느낌이 어떠한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가 47.7%, 대단히 부럽다가 31.8%, 부끄럽고 쑥스러운 생각이 든다가 17.8%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가 54.4%, 대단히 부럽다가 31.4%, 부끄럽고 쑥스러운 생각이 든다가 10.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불량스럽고 나쁜 느낌이 든다의 경우, 남학생은 2.7%, 여학생은 3.9%로서 남녀 학생 모두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성별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지역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느낌

		대단히 부럽다	부끄럽고 쑥스러운 생각이 든다	불량스럽고 나쁜느낌이 든다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전체	x^2 (p)
성별	여	89	29	11	154	283	7.359 (.061)
		31.4%	10.2%	3.9%	54.4%	100.0%	
	남	82	46	7	123	258	
		31.8%	17.8%	2.7%	47.7%	100.0%	
지역	대도시	60	20	9	103	192	8.824 (.184)
		31.3%	10.4%	4.7%	53.6%	100.0%	
	중소도시	57	25	4	103	189	
		30.2%	13.2%	2.1%	54.5%	100.0%	
	농촌, 어촌	54	30	5	71	160	
		33.8%	18.8%	3.1%	44.4%	100.0%	
전체		171	75	18	277	541	
		31.6%	13.9%	3.3%	51.2%	100.0%	

<표 14> 성교육시 받고 싶은 내용

		성행위/ 자위행위	이성교제	혼전 성관계/ 성병	피임/임신/ 출산/낙태	기타	전체	x^2 (p)
성별	여	14	143	9	62	46	274	47.250 *** (.000)
		5.1%	52.2%	3.3%	22.6%	16.8%	100.0%	
	남	40	129	29	25	21	244	
		16.4%	52.9%	11.9%	10.2%	8.6%	100.0%	
지역	대도시	24	71	11	37	38	181	33.160 *** (.000)
		13.3%	39.2%	6.1%	20.4%	21.0%	100.0%	
	중소 도시	14	110	11	24	20	179	
		7.8%	61.5%	6.1%	13.4%	11.2%	100.0%	
	농촌	16	91	16	26	9	158	
		10.1%	57.6%	10.1%	16.5%	5.7%	100.0%	
전체		54	272	38	87	67	518	
		10.4%	52.5%	7.3%	16.8%	12.9%	100.0%	

*** $p<.001$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교육시 받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남학생의 경우 이성교제가 52.9%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행위/자위행위, 혼전 성관계/성병, 피임/임신/출산/낙태,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여학생의 경우 이성교제 52.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임/임신/출산/낙태, 기타, 성행위/자위행위, 혼전 성관계/성병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학생 모두 이성교제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나 성행위/자위행위의 경우 남학생 16.4%, 여자 5.1%, 피임/임신/출산/낙태의 경우에는 여학생 22.6%, 남학생 10.2%로 나타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행위나 자위행위에 관심이 많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피임/임신/출산/낙태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x^2 = 47.250, p<.001).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행위/자위행위의 경우에는 대도시가 13.3%로 다른 도시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성교제의 경우에는 중소도시 61.5%, 농어촌 57.6% 높게 나타났다. 피임, 임신, 출산, 낙태의 경우에는 대도시 20.4%, 기타의 경우에는 대도시 20.1%로 나타나 대도시의 학생의 경우가 다른 지역의 학생보다 성교육시 받고 싶은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x^2 = 33.160, p<.001).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화, 키스, 포옹 등의 장면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끄럽고 쑥스러운 생각이 든다의 경우가 37.3%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33.2%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관심과 호기심이 생긴다의 경우 여자 12%, 남자 27.1%로 나타났으며 더러운 생각이 든다의 경우에는 여자 11.3%, 남자 1.2%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호기심을 더 느끼며 여자의 경우에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15> TV, 비디오, 영화 등에서 키스, 포옹, 침실장면을 봤을 때 느낌

		관심과 호기심이 생긴다	부끄럽고 쑥스러운 생각이 든다	더러운 느낌이 든다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기타	전체	x^2 (p)
성별	여	34	108	32	99	11	284	38.149 *** (.000)
		12.0%	38.0%	11.3%	34.9%	3.9%	100.0%	
	남	70	94	3	81	10	258	
		27.1%	36.4%	1.2%	31.4%	3.9%	100.0%	
지역	대도시	36	60	16	69	10	191	13.155 (.107)
		18.8%	31.4%	8.4%	36.1%	5.2%	100.0%	
	중소도시	30	75	9	68	8	190	
		15.8%	39.5%	4.7%	35.8%	4.2%	100.0%	
	농촌	38	67	10	43	3	161	
		23.6%	41.6%	6.2%	26.7%	1.9%	100.0%	
전체		104	202	35	180	21	542	
		19.2%	37.3%	6.5%	33.2%	3.9%	100.0%	

*** $p<.001$

<표 16> 성 고민 상담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아빠	43	8.1	32	6.5	37	8.1
엄마	146	27.6	107	21.9	65	14.3
선생님	14	2.6	31	6.3	65	14.3
친구	267	50.5	118	24.1	73	16.0
형제	6	1.1	38	7.8	23	5.1
자매	17	3.2	48	9.8	49	10.8
인터넷 상담	34	6.4	99	20.2	76	16.7
전화상담	2	.4	16	3.3	67	14.7
합계	529	100.0	489	100.0	455	100.0

지역의 경우에는 부끄럽고 쑥스러운 생각이 든다 의 경우 농어촌 41.6%, 중소도시 39.5%, 대도시 31.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대도시의 학생들이 쑥스러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고민 상담을 누구와 하는 지에 대한 우선순의 분석 결과를 보면 1순위의 경우 친구가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엄마 27.6%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친구와 엄마와 상담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 성에 대한 지식의 비교 분석 결과

성에 대한 성별, 지역별 지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에 대한 지식 차이를 살펴보면 2차 성장에 따른 신체 변화에 대한 지식의 경우에는 성별의 경우 여자 3.47점, 남자 3.60점으로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의 경우에는 대도시 3.39점, 중소도시 3.49점, 농어촌 3.75점으로 농어촌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 5.066, p<.001). 월경에 대한 지식의 경우에는 여자 3.48점, 남자 2.68점으로 여자가 월경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F = 8.570, p<.001)를 나타냈으며, 지역의 경우에는 농어촌이 3.33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 = 6.856, p<.001). 몽정의 경우에는, 여자 2.45점 남자 3.27점으로 남자가 몽정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F = 8.657, p<.001)를 보였으며, 지역의 경우에는 농어촌 3.11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지역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 = 6.527, p<.01). 임신에서 출산까지에 대한 지식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3.28점 여자 3.20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경우에는 농어촌 3.39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17> 성에대한 지식 차이 비교

지식	성별/지역별		N	평균	표준편차	F	p
2차성장에 따른 신체변화에 대한 지식	성별	여	283	3.47	1.049	1.460	.145
		남	255	3.60	1.135		
	지역	대도시(서울)	191	3.39[a]	1.191	5.066 ***	.007
		중소도시	187	3.49[a]	1.054		
		농촌	160	3.75[b]	.978		
월경에 대한 지식	성별	여	283	3.48	.958	8.570 ***	.000
		남	254	2.68	1.191		
	지역	대도시(서울)	190	3.13[a]	1.190	6.856 ***	.001
		중소도시	187	2.88[b]	1.127		
		농촌	160	3.33[c]	1.067		
몽정에 대한 지식	성별	여	278	2.45	1.021	8.657 ***	.000
		남	252	3.27	1.160		
	지역	대도시(서울)	190	2.78[a]	1.235	6.527 **	.002
		중소도시	184	2.67[a]	1.118		
		농촌	156	3.11[b]	1.081		
임신에서 출산까지에 대한 지식	성별	여	283	3.20	1.012	.908	.364
		남	256	3.28	1.120		
	지역	대도시(서울)	191	3.15	1.073	2.356	.096
		중소도시	188	3.20	1.074		
		농촌	160	3.39	1.034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	성별	여	282	2.11	1.058	4.541 ***	.000
		남	254	2.57	1.292		
	지역	대도시(서울)	190	2.44	1.179	3.241	.040
		중소도시	188	2.15	1.120		
		농촌	158	2.42	1.283		
에이즈에 대한 지식	성별	여	284	2.64	1.127	3.977 ***	.000
		남	255	3.05	1.245		
	지역	대도시(서울)	191	2.90	1.214	.604	.547
		중소도시	188	2.76	1.133		
		농촌	160	2.84	1.262		

a, b, c, 는 사후 검증결과의 차이를 표시함
** $p<.01$, *** $p<.001$

피임방법에 대한 지식의 결과에서는, 성별의 경우 남자 2.57점 여자 2.11점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 =

4.541, $p<.001$), 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 2.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에이즈에 대한 결과에서는 성별의 경우, 남자 3.05점으로 여자 2.64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F = 3.977, $p<.001$)를 나타냈으며, 지역의 경우에는 대도시 2.90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18>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경로

		엄마	선생님	친구	인터넷	성인용 잡지	기타†	전체	χ^2 (p)
성별	여	64	66	65	37	2	41	275	106.222*** (.000)
		23.3%	24.0%	23.6%	13.5%	.7%	14.9%	100.0%	
	남	4	34	115	68	7	28	256	
		1.6%	13.3%	44.9%	26.6%	2.7%	10.9%	100.0%	
지역	대도시	23	34	66	30	3	30	186	46.408*** (.000)
		12.4%	18.3%	35.5%	16.1%	1.6%	16.1%	100.0%	
	중소도시	35	22	53	51	1	25	187	
		18.7%	11.8%	28.3%	27.3%	.5%	13.4%	100.0%	
	농촌	10	44	61	24	5	14	158	
		6.3%	27.8%	38.6%	15.2%	3.2%	8.9%	100.0%	
전체		68	100	180	105	9	69	531	
		12.8%	18.8%	33.9%	19.8%	1.7%	13.0%	100.0%	

† 기타 응답에는 아빠, 형제, 자매, 성인용 잡지가 포함되어 있음
*** $p<.001$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경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친구의 경우가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터넷 19.8%, 선생님 18.8%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선생님 24%, 친구 23.6%, 엄마 23.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남자의 경우에는 친구 44.9%, 인터넷 26.6% 순으로 나타나 남자의 경우 친구와 인터넷을 통해 주로 성지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 = 106.222, p<.001).

지역의 경우에는 엄마의 경우 중소도시 18.7%로 높게 나타났으며 선생님의 경우에는 농촌 27.8%, 친구의 경우에는 농촌 38.6%, 인터넷의 경우에는 중소도시 27.3%로 나타나 농촌의 경우에는 친구와 선생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x^2 = 46.408, p<.001).

D. 성에 대한 의식의 비교 분석 결과

성별과 지역에 따른 중학생의 성의식과 경험을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9>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

		친구로서의 교제는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학업에 지장을 주므로 사귀지 않아야 한다	불건전한 생각을 갖게되므로 삼가야 한다	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타	전체	x^2 (p)
성별	여	162	8	3	93	18	284	12.126* (.016)
		57.0%	2.8%	1.1%	32.7%	6.3%	100.0%	
	남	134	11	16	81	13	255	
		52.5%	4.3%	6.3%	31.8%	5.1%	100.0%	
지역	대도시	106	3	8	56	17	190	12.639 (.125)
		55.8%	1.6%	4.2%	29.5%	8.9%	100.0%	
	중소도시	98	9	4	69	9	189	
		51.9%	4.8%	2.1%	36.5%	4.8%	100.0%	
	농촌	92	7	7	49	5	160	
		57.5%	4.4%	4.4%	30.6%	3.1%	100.0%	
전체		296	19	19	174	31	539	
		54.9%	3.5%	3.5%	32.3%	5.8%	100.0%	

* p<.05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성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친구로서의 교제는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의 경우가 54.9%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가 32.3%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친구로서의 교제는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의 경우 여자 57%, 남자 52.5%로 나타났으며 불건전한 생각을 갖게 되므로 삼가야 한다의 경우 남자 6.3%, 여자 1.1%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x^2 = 12.126, p<.05).

지역의 경우에는 친구로서의 교제는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의 경우, 농촌 57.5%, 대도시 55.8%, 중소도시 5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20> 중학생의 적당한 이성교제 수준

		대화하는 정도가 좋다	그저 알고 인사하는 정도가 좋다	손잡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키스나 포옹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서로 원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전 체	x^2 (p)
성별	여	33	15	151	81	3	283	17.381** (.002)
		11.7%	5.3%	53.4%	28.6%	1.1%	100.0%	
	남	39	21	100	79	14	253	
		15.4%	8.3%	39.5%	31.2%	5.5%	100.0%	
지역	대도시	16	14	74	79	5	188	26.086*** (.001)
		8.5%	7.4%	39.4%	42.0%	2.7%	100.0%	
	중소도시	29	11	103	39	6	188	
		15.4%	5.9%	54.8%	20.7%	3.2%	100.0%	
	농촌	27	11	74	42	6	160	
		16.9%	6.9%	46.3%	26.3%	3.8%	100.0%	
전체		72	36	251	160	17	536	
		13.4%	6.7%	46.8%	29.9%	3.2%	100.0%	

** p<.01, *** p<.001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생의 적당한 이성교제 수준에 대한 생각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손잡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의 경우가 46.8%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키스나 포옹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29.9%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손잡는 정도는 괜찮다의 경우, 여자 53.4%, 남자 39.5%로 나타났으며 키스나 포옹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의 경우, 여자 28.6%, 남자 31.2%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이성교제 수준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x^2 = 17.381, p<.01).

지역의 경우에는 대화하는 정도가 좋다의 경우, 농촌 16.9%로 높게 나타났으며 손잡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의 경우에는 중소도시 54.8%, 키스나 포옹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가 42%로 높게 나타나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경우가 농촌 보다 이성교제 수준에 대해 더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21> 이성에 대한 성 충동 경험 여부

		많다	가끔 있다	있다	전혀 없다	전체	x^2 (p)
성별	여	5	29	24	226	284	151.543*** (.000)
		1.8%	10.2%	8.5%	79.6%	100.0%	
	남	21	98	64	66	249	
		8.4%	39.4%	25.7%	26.5%	100.0%	
지역	대도시	9	45	34	98	186	3.732 (.713)
		4.8%	24.2%	18.3%	52.7%	100.0%	
	중소도시	7	49	26	106	188	
		3.7%	26.1%	13.8%	56.4%	100.0%	
	농촌	10	33	28	88	159	
		6.3%	20.8%	17.6%	55.3%	100.0%	
전체		26	127	88	292	533	
		4.9%	23.8%	16.5%	54.8%	100.0%	

*** p<.001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성에 대한 성 충동 경험 여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혀없다의 경우가 54.8%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가끔 있다 23.8%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가끔있다가 39.4%로 높게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전혀없다가 79.6%로 나타나 성별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x^2 = 151.543, p<.001).

지역의 경우에는 전혀없다의 경우, 중소도시 56.4%, 농촌 55.3%, 대도시 52.7%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22> 성적인 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때

		영화, TV, 비디오를 보고	애정만화, 애정 소설을 읽고	길거리에서 노출이 심한 사람을 보고	컴퓨터 통신을 통해 음란물을 보고	기타†	전체	x^2 (p)
성별	여	94	49	4	9	96	252	132.286*** (.000)
		37.3%	19.4%	1.6%	3.6%	37.3%	100.0%	
	남	100	11	28	55	47	241	
		41.5%	4.6%	11.6%	22.8%	10.4%	100.0%	
지역	대도시	65	15	14	17	60	171	28.142* (.014)
		38.0%	8.8%	8.2%	9.9%	32.7%	100.0%	
	중소도시	60	28	12	27	45	172	
		34.9%	16.3%	7.0%	15.7%	20.3%	100.0%	
	농촌	69	17	6	20	38	150	
		46.0%	11.3%	4.0%	13.3%	18.7%	100.0%	
전체		194	60	32	64	143	493	
		39.4%	12.2%	6.5%	13.0%	24.1%	100.0%	

† 기타 응답에는 주간지, 월간지, 여성잡지 등의 잡지를 보고; 벽보판의 야한 선전포스터를 보고; 오락신문(스포츠신문, 연예신문 등)을 보고가 포함되어 있음

* p<.05, *** p<.001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적인 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때는 언제인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영화, TV, 비디오를 보고의 경우가 39.4%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영화, TV, 비디오를 보고의 경우 남자 41.5%, 여자 37.3%로 나타났으며 애정만화, 애정소설을 읽고의 경우에는 여자 19.4%, 남자 4.6%, 컴퓨터 동신을 통해 음란물을 보고의 경우에는 남자 22.8%, 여자 3.6%로 나타나 남자의 경우 컴퓨터통신을 통한 음란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애정만화, 애정소설을 읽고의 경우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x^2 = 132.286, p<.001).

지역의 경우에는 영화, TV, 비디오를 보고의 경우 농촌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대도시 32%로 높게 나타나, 대도시의 경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성충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 = 28.142, p<.05).

<표 23> 성충동을 느낄 때 해소방법

		공부나 운동, 취미활동을 한다	자위행위를 한다	이성과 데이트를 한다	그냥 참는다	기타	전체	x^2 (p)
성별	여	87	3	5	65	91	251	72.774*** (.000)
		34.7%	1.2%	2.0%	25.9%	36.3%	100.0%	
	남	126	29	8	68	21	252	
		50.0%	11.5%	3.2%	27.0%	8.3%	100.0%	
지역	대도시	65	11	10	39	52	177	26.818*** (.001)
		36.7%	6.2%	5.6%	22.0%	29.4%	100.0%	
	중소도시	69	15	2	53	35	174	
		39.7%	8.6%	1.1%	30.5%	20.1%	100.0%	
	농촌	79	6	1	41	25	152	
		52.0%	3.9%	.7%	27.0%	16.4%	100.0%	
전체		213	32	13	133	112	503	
		42.3%	6.4%	2.6%	26.4%	22.3%	100.0%	

*** p<.001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충동을 느낄 때 해소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공부나 운동, 취미활동을 한다의 경우가 42.3%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그냥 참는다 26.4%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공부나 운동 취미 활동을 한다의 경우 남자 50%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위행위를 한다의 경우에는, 남자 11.5%, 여자 1.2%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에는 여자 36.3%로 높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공부나 운동, 취미활동을 하거나 그냥 참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 = 72.774, p<.001).

지역의 경우에는, 공부나 운동, 취미활동을 한다의 경우, 농촌 52%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대도시 29.4%로 나타나,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경우가 농어촌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충동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x^2 = 26.818, p<.001).

<표 24> 성폭력이나 성희롱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x^2 (p)
성별	여	17	267	284	1.793 (.181)
		6.0%	94.0%	100.0%	
	남	9	247	256	
		3.5%	96.5%	100.0%	
지역	대도시	16	175	191	9.616** (.008)
		8.4%	91.6%	100.0%	
	중소도시	3	185	188	
		1.6%	98.4%	100.0%	
	농촌	7	154	161	
		4.3%	95.7%	100.0%	
전체		26	514	540	
		4.8%	95.2%	100.0%	

** p<.01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없다의 경우가 95.2%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는 없다의 경우 남자 96.5%, 여자 94%로 나타났으며, 지역의 경우에는 있다의 경우 대도시 8.4%, 농촌 4.3%, 중소도시 1.6%로 나타나, 대소시의 경우가 성폭력이나 성희롱 경험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x^2 = 9.616, p<.01).

<표 25> 성폭력이나 성희롱 경험했을 때 자신의 위치

		가해자	피해자	기타	전체
성별	여	1	15	1	17
		5.9%	88.2%	5.9%	100.0%
	남	3	6	0	9
		33.3%	66.7%	.0%	100.0%
지역	대도시	3	12	1	16
		18.8%	75.0%	6.3%	100.0%
	중소도시	0	3	0	3
		.0%	100.0%	.0%	100.0%
	농촌	1	6	0	7
		14.3%	85.7%	.0%	100.0%
전체		4	21	1	26
		15.4%	80.8%	3.8%	100.0%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경험했을 때 자신의 위치는 어디였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경우에는 여자 88.2%, 남자 66.7%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경우 중소도시 100%, 농촌 85.7%, 대도시 75%로 나타났다.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추행을 당한 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한 결과를 보면 버스와 지하철이 각각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6> 성추행을 당한 장소

장 소	빈 도	퍼센트(%)
놀이터	1	3.8
매점	1	3.8
버스	4	15.4
병원	1	3.8
산 속	1	3.8
아이스링크	1	3.8
엘리베이터	1	3.8
오락실 계단	1	3.8
우리 마을	1	3.8
인터넷	2	7.7
지하철	4	15.4
풀숲	1	3.8
학교	2	7.7
무응답	5	19.2
합 계	26	100.0

<표 27> 성추행 상대자

	빈도	퍼센트(%)
꼬마아이	1	3.8
모르는 사람	12	46.2
버스기사	1	3.8
의사	1	3.8
친구	2	7.7
학생	1	3.8
할머니	1	3.8
무응답	7	26.9
합 계	26	100.0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추행 상대자는 모르는 사람의 경우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친구 7.7%로 나타났다.

<표 28> 자위행위 경험 유무

		했다	하지 않았다	전체	x^2 (p)
성별	여	6	268	274	107.211*** (.000)
		2.2%	97.8%	100.0%	
	남	91	148	239	
		38.1%	61.9%	100.0%	
지역	대도시 (서울)	42	134	176	5.839 (.054)
		23.9%	76.1%	100.0%	
	중소도시	34	147	181	
		18.8%	81.2%	100.0%	
	농촌	21	135	156	
		13.5%	86.5%	100.0%	
전체		97	416	513	
		18.9%	81.1%	100.0%	

*** p<.001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위행위 경험 유무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다의 경우가 81.1%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했다의 경우 남자 38.1%, 여자 2.2%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자위행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x^2 = 107.211, p<.001).

지역의 경우에는 했다의 경우 대도시 23.9%, 중소도시 18.8%, 농촌 13.5%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경우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29> 성별에 따른 키스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x^2 (p)
성별	여	24	248	272	1.308 (.253)
		8.8%	91.2%	100.0%	
	남	29	215	244	
		11.9%	88.1%	100.0%	
전체		53	463	516	
		10.3%	89.7%	100.0%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서 키스경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자는 없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남자는 있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0> 성별에 따른 키스한 당시 나이

		7세	9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전체	x^2 (p)
성별	여	0	0	2	1	1	7	5	16	7.218 (.301)
		.0%	.0%	12.5%	6.3%	6.3%	43.8%	31.3%	100.0%	
	남	2	1	0	2	0	4	6	15	
		13.3%	6.7%	.0%	13.3%	.0%	26.7%	40.0%	100.0%	
전체		2	1	2	3	1	11	11	31	
		6.5%	3.2%	6.5%	9.7%	3.2%	35.5%	35.5%	100.0%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서 키스한 당시 나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여자는 15세라는 응답이 남자는 16세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1> 키스 상대자

상대자	빈도	퍼센트(%)
남자	1	4.8
남자친구	9	42.9
아는 오빠	1	4.8
여자	2	9.5
여자친구	5	23.8
이웃집 누나	1	4.8
친구	1	4.8
후배	1	4.8
합계	21	100.0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키스 상대자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친구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여자친구 23.8%로 나타났다.

<표 32> 성별에 따른 애무 경험

		있다	없다	전체	x^2 (p)
성별	여	5	262	267	1.788 (.181)
		1.9%	98.1%	100.0%	
	남	9	225	234	
		3.8%	96.2%	100.0%	
전체		14	487	501	
		2.8%	97.2%	100.0%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서 애무 경험에 대한 결과를 보면 성별에 크게 관계없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다.

<표 33> 애무 경험 시 나이

나이	빈도	퍼센트(%)
8세	1	11.1
13세	2	22.2
15세	2	22.2
16세	4	44.4
합계	9	100.0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무 경험 시 나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16세의 경우가 44.4%, 13세와 15세 모두 22.2%로 나타났다.

<표 34> 애무 상대자

상대자	빈도	퍼센트(%)
남자	1	16.7
남자친구	2	33.3
여자친구	3	50.0
합계	6	100.0

<표 34> 애무상대자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여자친구가 50%, 남자친구가 33.3%로 나타났다.

<표 35> 성관계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χ^2 (p)
성별	여	2	266	268	.960 (.327)
		0.7%	99.3%	100.0%	
	남	4	232	236	
		1.7%	98.3%	100.0%	
전체		6	498	504	
		1.2%	98.8%	100.0%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성관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성별에 크게 관계없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6>성관계 경험 당시 나이

나이	빈도	퍼센트(%)
14세	1	33.3
15세	1	33.3
16세	1	33.3
합계	3	100.0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관계 경험 당시의 나이가 14세, 15세, 16세 각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키스, 애무, 성관계 경험 시 느낀 감정

		매우 기분이 불쾌 하였다	기분이 불쾌 하였다	기분이 좋았다	아주 좋았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기타	전체	x^2 (p)
성별	여	0	3	14	3	7	1	28	12.094* (.034)
		.0%	10.7%	50.0%	10.7%	25.0%	3.6%	100.0%	
	남	5	3	7	11	7	3	36	
		13.9%	8.3%	19.4%	30.6%	19.4%	8.3%	100.0%	
지역	대도시	3	2	9	5	8	1	28	13.436 (.200)
		10.7%	7.1%	32.1%	17.9%	28.6%	3.6%	100.0%	
	중소도시	0	1	5	6	0	0	12	
		.0%	8.3%	41.7%	50.0%	.0%	.0%	100.0%	
	농촌	2	3	7	3	6	3	24	
		8.3%	12.5%	29.2%	12.5%	25.0%	12.5%	100.0%	
전체		5	6	21	14	14	4	64	
		7.8%	9.4%	32.8%	21.9%	21.9%	6.3%	100.0%	

* $p<.05$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키스, 애무, 성관계 경험 시 느낀 감정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분이 좋았다의 경우가 21.9%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아주 좋았다 21.9%,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21.9%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기분이 좋았다의 경우 여자 50%, 남자 19.4%로 나타났으며 아주 좋았다의 경우에는 남자 30.6%, 여자 10.7%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x^2 = 12.094, $p<.05$).

<표 38> 재학 중 본인이나 친구가 임신했을 경우에 대한 생각

		남자가 해결해야 한다	여자가 해결해야 한다	남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의논하여 해결한다	상담전문 기관과 상의하여 해결한다	기타	전체	x^2 (p)
성별	여	8	3	66	141	53	13	284	18.082** (.003)
		2.8%	1.1%	23.2%	49.6%	18.7%	4.6%	100.0%	
	남	9	11	57	91	74	10	252	
		3.6%	4.4%	22.6%	36.1%	29.4%	4.0%	100.0%	
지역	대도시	10	5	51	77	35	9	187	23.039* (.011)
		5.3%	2.7%	27.3%	41.2%	18.7%	4.8%	100.0%	
	중소도시	4	3	50	83	40	9	189	
		2.1%	1.6%	26.5%	43.9%	21.2%	4.8%	100.0%	
	농촌	3	6	22	72	52	5	160	
		1.9%	3.8%	13.8%	45.0%	32.5%	3.1%	100.0%	
전체		17	14	123	232	127	23	536	
		3.2%	2.6%	22.9%	43.3%	23.7%	4.3%	100.0%	

* $p<.05$, ** $p<.01$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 중 본인이나 친구가 임신했을 경우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의논하여 해결한다의 경우가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의논하여 해결 한다의 경우가 49.6%로 남자 36.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상담전문 기관과 상의하여 해결한다의 경우가 29.4%로 여자 18.7%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x^2 = 18.082, $p<.01$).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의논하여 해결한다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나, 상담전문기관과 상의하여 해결한다의 경우에는 농촌 32.5%, 중소도시 21.2%, 대도시 18.7%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나타냈다(x^2 = 23.039, $p<.05$).

<표 39> 낙태에 대한 생각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어떤 경우도 안된다	본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모르겠다	기타	전체	x^2 (p)
성별	여	103	52	64	59	7	285	6.581 (.160)
		36.1%	18.2%	22.5%	20.7%	2.5%	100.0%	
	남	69	54	62	67	4	256	
		27.0%	21.1%	24.2%	26.2%	1.6%	100.0%	
지역	대도시	83	25	39	38	6	191	24.925** (.002)
		43.5%	13.1%	20.4%	19.9%	3.1%	100.0%	
	중소도시	49	45	50	43	3	190	
		25.8%	23.7%	26.3%	22.6%	1.6%	100.0%	
	농촌	40	36	37	45	2	160	
		25.0%	22.5%	23.1%	28.1%	1.3%	100.0%	
전체		172	106	126	126	11	541	
		31.8%	19.6%	23.3%	23.3%	2.0%	100.0%	

** $p<.01$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의 경우가 31.8%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떤 경우도 안된다의 경우는 19.6%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의 경우 여자 36.1%, 남자 27%로 여자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가능 하다의 경우가 43.5%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본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26.3%, 농촌의 경우에는 모르겠다 28.1%로 나타나 지역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x^2 = 24.925, $p<.01$).

<표 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 전 순결 유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녀모두 지켜야 한다의 경우가 53.4%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사이라도 지키는 것이 좋다의 경우가 28.9%로 나타났다.

<표 40> 결혼 전 순결 유지에 대한 생각

		남녀 모두 지켜야 한다	남녀 모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랑하는 사이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랑하는 사이라도 지키는 것이 좋다	기타	전체	x^2 (p)
성별	여	155	5	19	84	21	284	7.064 (.133)
		54.6%	1.8%	6.7%	29.6%	7.4%	100.0%	
	남	131	10	28	71	12	252	
		52.0%	4.0%	11.1%	28.2%	4.8%	100.0%	
지역	대도시	91	6	20	59	12	188	9.011 (.341)
		48.4%	3.2%	10.6%	31.4%	6.4%	100.0%	
	중소도시	99	5	17	52	16	189	
		52.4%	2.6%	9.0%	27.5%	8.5%	100.0%	
	농촌	96	4	10	44	5	159	
		60.4%	2.5%	6.3%	27.7%	3.1%	100.0%	
전체		286	15	47	155	33	536	
		53.4%	2.8%	8.8%	28.9%	6.2%	100.0%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모두 지켜야 한다의 경우 여자 54.6%, 남자 52%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의 경우에는 남녀모두 지켜야 한다의 경우 농촌 60.4%, 중소도시 52.4%, 대도시 48.4%로 나타났다.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결혼 전까지는 그래야 할 것 같아서의 경우가 34.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불결 수치스럽기 때문에가 25.9%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에서는 임신, 성병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의 경우에 남자 23.8%, 여자 15%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불결 수치스럽기 때문에의 경우에는 여자 30.4%, 남자 20.5%로 차이를 나타냈다(x^2 = 11.276, p<.05).

지역의 경우에는 결혼 전까지는 그래야 할 것 같아서의 경우가 중소도시 41.1%, 농촌 33.8%, 대도시 27.2%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1>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

		임신, 성병으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결혼 전까지는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결혼 후 떳떳하지 못할까봐	불결, 수치스럽기 때문에	기타	전체	x^2 (p)
성별	여	38	89	27	77	22	253	11.276* (.024)
		15.0%	35.2%	10.7%	30.4%	8.7%	100.0%	
	남	50	69	32	43	16	210	
		23.8%	32.9%	15.2%	20.5%	7.6%	100.0%	
지역	대도시	38	43	20	42	15	158	9.931 (.270)
		24.1%	27.2%	12.7%	26.6%	9.5%	100.0%	
	중소도시	28	67	18	38	12	163	
		17.2%	41.1%	11.0%	23.3%	7.4%	100.0%	
	농촌	22	48	21	40	11	142	
		15.5%	33.8%	14.8%	28.2%	7.7%	100.0%	
전체		88	158	59	120	38	463	
		19.0%	34.1%	12.7%	25.9%	8.2%	100.0%	

* $p<.05$

<표 42>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

		성 개방으로 의식이 바뀌었으므로	연애와 결혼은 다르기 때문에	성 충동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남자와 여자의 정조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기타	전체	x^2 (p)
성별	여	14	13	2	2	10	41	5.710 (.222)
		34.1%	31.7%	4.9%	4.9%	24.4%	100.0%	
	남	27	24	9	8	8	76	
		35.5%	31.6%	11.8%	10.5%	10.5%	100.0%	
지역	대도시	16	17	4	2	12	51	17.346* (.027)
		31.4%	33.3%	7.8%	3.9%	23.5%	100.0%	
	중소도시	17	5	3	5	5	35	
		48.6%	14.3%	8.6%	14.3%	14.3%	100.0%	
	농촌	8	15	4	3	1	31	
		25.8%	48.4%	12.9%	9.7%	3.2%	100.0%	
전체		41	37	11	10	18	117	
		35.0%	31.6%	9.4%	8.5%	15.4%	100.0%	

* $p<.05$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이유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성 개방으로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라는 답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애와 결혼은 다르기 때문에가 31.6%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성개방으로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가 남자 35.5%, 여자 34.1%로 남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역의 경우에서는 성개방으로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의 경우 중소도시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애와 결혼은 다르기 때문에의 경우 농촌 48.4%, 대도시 33.3%로 나타나 지역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x^2 = 17.346, p<.05).

V. 결론 및 제언

A.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남녀학생들의 성에 대한 관심과 생각, 성에 대한 지식, 성의식과 경험에 대해 대도시(서울), 중소도시(전남, 전북), 농촌(전남, 전북)의 지역에서 6개의 남녀공학 중학교들에서 성 의식과 성 문제에 관련된 실태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의 성의 관심, 의식,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결과 남녀의 차이를 교육 현장에 접목하여 중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문화와 성 지식을 습득하고, 분별 있고, 건전한 성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회수 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대답한 질문지 16부를 제외한 544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학교생활만족도는 성별에 크게 관계없이 보통으로 나왔다. 고민거리로는 여자는 외모, 남자는 학업성적으로 나와 차이를 보였다. 몽정의 경험 유무는 경험했다 50.2%, 경험하지 못했다 49.8%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초경 경험유무는 96.2%로 14세(43.85)때가 가장 높았다.

둘째, 성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비교분석결과로는 성에 대한 느낌에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과 달리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들과 성에 대한 대화여부는 남자(21.9%)가 여자(4.9%)보다 훨씬 많았다. 이성을 사귀고 싶은 생각에 대해서는 남·여학생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성교육을 받고 싶은 분야에서는 남학생들은 이성교제나 성행위에 대한 성교육을 원하나, 여학생들은 이성교제와 피임, 임신, 출산, 낙태에 관한 성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화/비디오에서의 남녀의 키스나, 포옹과 같은 장면에서는 남학생들의 27.1%, 여학생들은 12%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반면에 더러운 느낌이 든다는 여학생들은 11.3%,

남학생들은 1.2%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부끄러움과 쑥스러운 생각이 든다는 여학생이 38.0%, 남학생이 36.4%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농촌(23.6%), 대도시(18.8%), 중소도시(15.8%)로 순으로 나타났고, 더러운 느낌이 든다 에는 대도시(8.4%), 농촌(6.2%), 중소도시(4.7%)순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끄러움과 쑥스러운 생각이 든다가(37.3%)에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33.2%), 관심과 호기심이 생긴다(19.2%), 더러운 느낌이 든다(6.3%), 기타(3.9%) 순으로 나타났다.

성 고민 상담 우선순위는 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성에 대한 지식의 비교 분석 결과는 남학생들이 높게 나타나서 남학생들이 성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관심의 생각을 지식으로 축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자신의 생리주기를 잘 알고 있고, 몽정에 대하여는 여자보다 남학생이 더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피임의 방법에 대하여서는 남녀 학생 모두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들은 여성의 생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성에 대한 지식의 습득은 전체적으로는 친구, 인터넷,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친구, 인터넷, 선생님 순이고 여학생은 선생님, 친구, 엄마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 의식과 경험에 관한 비교분석 결과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더 적극적이었으며, 중학생의 적당한 이성교제수준에도 서로 원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학생들(1.1%)보다 남학생들(5.5%)의 비율이 훨씬 높고, 남학생들의 성충동 경험여부에서도 남학생의 73.5%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여학생은 21.4%만이 성적충동이 있다고 응답을 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성적충동의 매개체로는 남녀모두 영상매체가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여학생 37.3%, 남학생 41.5%), 그 다음으로 여학생은 애정물(19.4%), 남학생은 컴퓨터 음란물(22.8%)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성적 충동의 해소방법으로 남학생은 공부, 운동

(50.0%), 참는다(27.0%) 자위행위(11.5%)로 나타났으나, 여학생들은 기타(36.3%), 공부, 운동(34.7%), 참는다(37.8%)로 나타나서 성적충동의 해소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공부, 운동, 취미활동이 농촌(52.0%), 중소도시(39.7%), 대도시(36.7%)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경험유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없다의 경우가 95.2%로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대도시(8.4%), 농어촌(4.3%), 중소도시(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추행을 당한 장소는 버스와 지하철이 각각 15.4%로 높게 나타났다. 자위행위 경험의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다가 81.1%로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 보면 남자 38.1%가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여학생들은 2.2%만이 자위행위를 한다고 응답했다.

임신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의 문항에서는 여학생의 49.6%, 남학생의 36.1%가 부모님과 선생님께 의논하여 해결한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상담전문기관과 상담을 한다고 응답을 하였다.

낙태에 대한 의견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남학생이 27.0%, 여학생이 36.1% 로 있을 수 없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으며, 남녀 학생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 순결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53.4%가 지켜야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남학생들은 사랑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11.1%로 여학생들(6.7%)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는, 결혼 전까지는 그래야 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34.1%로 나타나서 아직은 우리나라의 관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떳떳하지 못할까봐 에서는 남학생들(15.2%)이 여학생들(10.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들은 불결, 수치스러워서가 30.4%로 남학생들 20.5% 보다 높게 나타났고 임신, 성병으로 벗어날 수 있다가 남학생 23.8%로 여학생 15.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현대를 살아왔고, 신세대라는 명칭이 붙은 학생들이지만 아직까지는 성개방이라는 글귀에 학생들이 쓸려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무조건적인 육체적인 성 관계보다는 성을 동경하고, 알고 싶어 하지만 본인들의 현실(학업)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쉽게 쓸려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혼전 순결에서 순결을 지켜야한다

고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남학생과 여학생의 생각이 같은 면이 많았다.

청소년들의 성 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처럼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성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가지의 입장에서 여학생들에 비해서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들은 더 많은 교육개발과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이 잘못된 성 행동과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적절하고도 건전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보다 본질적인 인간교육을 수행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B.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생들의 성에 대한 관심과 생각, 성 지식, 성 의식 경험 등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토대로 일반적인 주입식 성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성교육, 이를테면 성 상담의 상대가 친구가 많으므로 또래 친구들과 성에 관한 토의를 나누는 시간을 신설하여 친구들의 성에 대한 고민, 생각, 경험을 들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생님과 그 문제점의 해결 방법에 대해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과서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례를 들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한다. 유머가 풍부한 교사가 성교육을 담당하고 연수를 받은 다음 강의를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이성교제에 대해 중학생들의 의견은 서로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으므로 어른의 입장에서 나쁘게만 보지 말고 좋은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중학생의 성 충동의 매개체는 영상매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적 영상매체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성 충동에 대처할 수 있는 해소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교사가 성 상담의 상대자로서 순위가 낮은 것은 교사들이 학업과 관련되어 있어 어렵게만 느껴지고 친밀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학업과 관련 없이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봐 줄 수 있는 사회복지나 상담을 전공한 상담교사의 배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지역실정과 학교실정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성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혜진, 김경희, 함미영, 염순교, 조주연, 최미혜(2006). 남자 중학생의 성허용성, 성태도 및 성정체성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5(1), 99-108.

구경화(2004), 중학생의 성의식과 성교육 실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자옥(1991). 중등학교의 성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자혁(2000). 중학생들의 성의식 수준과 학교에서의 성교육실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숙(2005). 중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성충동, 성지식, 성태도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석우, 한홍련(2005). 중학생의 성교육 인식조사 및 성별에 따른 요구차이 분석. **교육과학연구**, 36(1), 125-141.

김인석(1986). 청소년 심리학. 서울: 배영사.

김종출(2000). 청소년의 성 의식 및 성 실태 조사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제한(1986). **청소년 발달심리학**. 서울: 세광출판사.

김혜원, 이해경(2000). 청소년들을 위한 양성 평등 성교육 방향의 모색: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실태에 근거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29-45.

박아청(1987). **청소년과 아이덴티티**. 서울: 배영사,

박성정(1999). 청소년 성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희(2004). 성 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유철(1999). 농촌 청소년 성 의식 및 행동변화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박종수(1998). 중학생 성 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무련(2005). 기독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성지식, 성의식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기석(2005). 중학생 성의식 수준과 성행동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희정(1999). 청소년의 성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3). **평생교육 발전 세미나 보고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나영(1999). 포르노 경험을 통해서 본 성인의 섹슈얼리티.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백희(2000). 중학생 성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숙(2005).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폭력 사건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5), 709-720.

이용미(1998). 여중학생 성의식에 관한 비교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일환(2006). 성교육이 중학생의 성지시과 성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창식, 김윤정(2003). 청소년들의 사랑과 성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각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1), 227-296.

이화수(1992). **근로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와 대처방안**. 서울: 청소년회의 광장.

임금자(2005). 청소년의 성의식과 이성교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금호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병림(1975). **청년 심리학**. 서울: 법문사.

장휘숙(2000). **인간발달**. 서울: 박영사.

최경숙(2002).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혜영, 송정아(2006). 성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성지식 및 성태도 효과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44(1), 47-58.

홍명호(1995). 청소년의 성 태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응연, 이기돈(1992). **발달 심리학**. 서울: 배영사.

홍선화(2000). 한국 수도권 중학생 성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emetri, V.(1989). The effects of two method of teaching sex education on the behaviors of student. *Journal of Student Health, 49(7),* 105-119.

Freud. A.(1958). Adolescence. In R. S. Eisslar et al. (Eds),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Vol. 13).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Gordon, S., & Snyder, C. (1980). *Personal issues in human sexuality.* Boston: Allyn & Bacon.

Hendrick, C., & Hendrick, S.(1987). Love and sexual attitudes, self-disclosure, and sensation seek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 281-297.

Hurlock. E. B.(1989). *Child Development*(5th ed). New York: McGraw Hill.

Wood, D. A.(1975). Comparative study of sex information sources. *Journal of Student Health, 52*(2), 59-70.

중학생의 성 의식에 관한 조사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청소년 여러분의 의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들에는 옳고, 틀린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의 솔직한 답변이 꼭 필요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성명을 밝힐 필요가 없으며 여러분의 응답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본 연구목적에만 사용되므로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이 확실히 보장되니 편안한 마음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이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5 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지 분 순

Ⅰ. 다음문항들의 해당되는 사항에 V표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 여 ___ ② 남 ___

2. 귀하가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는?
① 대도시 ___ ② 중소도시 ___ ③ 농촌, 어촌 ___

3.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

1	2	3	4	5
매우 불만족이다	불만족한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한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4.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① 이성문제 ____ ② 친구문제 ____ ③ 학업성적____
④ 외모____ ⑤ 건강 ____ ⑥ 없다____
⑦ 기타 ( )

5. 성(性)적 신체발달에 대한 물음입니다.
남학생 : ① 몽정을 경험했다. (당시 나이:)
②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여학생 : ①초경을 경험했다. (당시 나이:)
②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Ⅱ. 다음은 성에 대한 관심과 생각에 대해 묻는 문항입니다.

6. '성'이란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①부끄럽다____ ②아름답다____ ③더럽다___ ④아무느낌이 없다___
⑤두렵다____ ⑥흥미롭다____ ⑦야하다____ ⑧기타( )

7. 친구들과 성에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아주 많이 있다____ ②있는 편이다____ ③보통이다____

④별로 없다____ ⑤ 전혀 없다

8. 이성과 사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①아주 많이 있다____ ②있는 편이다____ ③보통이다____

④별로 없다____ ⑤전혀 없다____

9.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①대단히 부럽다____ ②부끄럽고 쑥스러운 생각이 든다____

③불량스럽고 나쁜 느낌이 든다____ ④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____

10. 만약 성교육을 받는다면 배우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성행위, 자위행위____ ②이성교제____ ③혼전 성관계, 성병____

④피임, 임신, 출산, 낙태____ ⑤기타 ( )

11. TV, 비디오, 영화 등에서 남녀의 키스, 포옹, 또는 침실장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①관심과 호기심이 생긴다____ ②부끄럽고 쑥스러운 생각이 든다____

③더러운 느낌이 든다____ ④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____

⑤기타( )

12. 성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누구하고 상의했나요? 또는 앞으로 성 고민이 생긴다면 누구하고 상의하고 싶은가요?

우선 순위로 3개만 써주세요. (/ /)

①아빠 ②엄마 ③선생님 ④친구 ⑤형제 ⑥자매 ⑦인터넷상담 ⑧전화상담

Ⅲ. 다음은 성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내 용	①	②	③	④	⑤
		아주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13	2차 성장에 따른 신체 변화를 알고 있습니까?					
14	월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15	몽정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16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17	피임방법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18	에이즈가 무슨 질병이며 감염경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9. 성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얻고 있습니까?

①아빠____ ②엄마____
③선생님____ ④친구____
⑤형제____ ⑥자매____
⑦인터넷____ ⑧성인용 잡지____
⑨기타 ( )

Ⅳ. 다음은 성 의식과 경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20. 이성교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친구로서의 교제는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____
②학업에 지장을 주므로 사귀지 않아야 한다____
③불건전한 생각을 갖게 되므로 삼가야한다____
④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____
⑤기타( )

21. 중학생의 이성교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대화하는 정도가 좋다____

②그저 알고 인사하는 정도가 좋다____

③손잡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____

④키스나 포옹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____

⑤서로 원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____

22. 이성에게 성적인 충동(욕구)을 느껴 본적이 있나요?

① 많다____ ② 가끔 있다____ ③ 있다____ ④ 전혀 없다____

23. 어떤 경우에 성적인 충동을 가장 많이 느꼈나요?

① 영화, TV, 비디오를 보고____

② 주간지, 월간지, 여성잡지 등의 잡지를 보고____

③ 벽보판의 야한 선전포스터를 보고____

④ 애정만화, 애정 소설을 읽고____

⑤ 길거리에서 노출이 심한 사람을 보고____

⑥ 전화정보서비스 등의 음성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____

⑦ 컴퓨터 통신을 통해 음란물을 보고____

⑧ 오락신문(스포츠신문, 연예 신문등)을 보고____

24. 성적충동을 느낄 때 대체로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나요?

① 공부 나 운동, 취미활동을 한다 ____

② 자위행위를 한다____

③ 이성과 데이트를 한다____

④ 그냥 참는다____ ⑤ 기타( )

25.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____ ② 없다____

26. 26번에서 '있다'에 해당하는 학생만 답해주세요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위치는?

① 가해자 ____ ② 피해자 ____ ③ 기타____

27. 26번에서 '있다'에 해당하는 학생만 답해주세요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경험했을 때 장소와 상대자는?
① 장소 _____ ② 상대자 _____

28. 자위행위를 해보셨습니까?
① 했다____ ② 하지 않았다____

29. 다음과 같은 경험을 가져 본적이 있나요?

	있다	없다	당시나이	상대자
① 키스	( )	( )	( )	( )
② 애무	( )	( )	( )	( )
③ 성관계	( )	( )	( )	( )

30. 30번에서 한 문항이라도 있다 에 해당하는 학생만 답해주세요.
위와 같은 경험을 가졌을 당시 학생이 느낀 감정은 어떠했나요?
① 매우 기분이 불쾌하였다____ ② 기분이 불쾌하였다____
③ 기분이 좋았다____ ④ 아주 좋았다____
⑤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____ ⑥ 기 타 ( )

31. 만일 학교에 다니는 중에 본인이나 친구가 임신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 남자가 해결해야한다____
② 여자가 해결해야한다____
③ 남녀가 함께 해결해야한다____
④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의논하여 해결한다____
⑤ 상담전문기관과 상의하여 해결한다____
⑥ 기타( )

32. 낙태(임신중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____ ② 어떤 경우도 안된다____
③ 본인의 마음에 달려있다____ ④ 모르겠다____
⑤ 기타( )

33. 결혼 전 순결유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남녀 모두 지켜야 한다____ ② 남녀 모두 지키지 않아도 된다____

③ 사랑하는 사이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____

④ 사랑하는 사이라도 지키는 것이 좋다____

⑤ 기타( )

34. 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답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① 임신, 성병으로 벗어날 수 있으므로____

② 결혼 전 까지는 그래야 할 것 같아서____

③ 결혼 후 떳떳하지 못할까봐____

④ 불결, 수치스럽기 때문에____

⑤ 기타( )

35. 왜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① 성 개방으로 의식이 바뀌었으므로____

② 연애와 결혼은 다르기 때문에____

③ 성 충동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____

④ 남자와 여자의 정조관념이 다르기 때문에____

⑤ 기타( )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